



# 오감만족 달빛 조각섬 '거제 산달도'

1 연륙교와 산달도 2, 3 예쁜 그림들로 채워진 산달도 벽담 4 산달도 포차 내부

이름만으로도 낯설고 설레는 오묘한 매력이 있는 섬으로 떠나보자. 행정구역상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에 속한 산달도는 거제만 중앙에 있다. 예전에는 본섬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 속의 섬이었지만 2018년 연륙교가 생겨 지금은 차로 왕래가 가능하다.

연륙교 위에서도 섬 꼭대기와 해안도로 절반이 보일 정도로 아담하면서도 조용하다. 연면적 297km에 해안선 길이는 8.2km에 이른다. 산달도에는 삼봉(三峰)으로 불리는 3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철따라 세 개의 봉우리 사이로 달이 솟아오른다고 해서 산달도로 일컬어졌다고 전해진다.

연륙교를 따라 내려가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이 나온다. 차를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입구에 주차하고 산책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섬 주변의 물빛은 하늘빛이 그대로 물에 잠긴 듯 유난히도 파랗다. 섬 해안도로와 방파제에는 낚시를 하며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여행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맛집 탐방. 출출한 허기를 달래면서 함께하는 이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곳을 찾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절반은 성공이다.

듬성듬성 식당과 펜션이 있는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니 이색적인 포차들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수족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주인장이 직접 잡았다는 자연산 멧게, 조개, 뽕소라, 낚지 등 신선한 해산

물들이 빨간 고무 대야에 담겨 보는 이를 반겨준다. 포차 내부는 깨끗이 씻은 가리비 조개껍데기들이 방문객의 소중한 추억을 한 아름 담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메뉴판은 양은 냄비와 은색 쟁반 바닥으로 대신한다.

해물 모듬을 시키면 바다가 한 상 나온다. 인근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으니 살이 쫄깃하고 탱글탱글해 맛이 일품이다.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 등산로에 올라보자. 산달도에는 당골재산(235m), 뒷들산(217m), 건너재산(209m) 등 세 개의 작은 산을 잇는 등산로가 있다.

제대로 섬 전체 산행을 한다면 총연장 4.1km에 3시간 남짓 걸리는 코스지만, 산 한 개만 등정해도 성취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산 고개를 한 번 올라서면 탁 트인 바다 풍경이 눈앞에 바로 펼쳐진다. 바다가 반짝거리려 눈이 부신다. 정상에 놓여 있는 벤치에 앉아 바람에 몸을 싣고 자연에 흠뻑 빠져 보는 것도 하나의 낭만이다.

산달도 이곳저곳에 발길을 옮기며 작고 예쁜 포구마을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산비탈에서 관광객에게 손짓하는 꽃양귀비와 예쁜 그림들이 그려진 벽담들, 갯벌 내음을 더 해주는 가리비 더미, 폐교된 분교를 리모델링한 산달분교 펜션 등 발길 가는 대로 부담 없이 풍경을 즐기다 보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



세계로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GEOJE

# 거제 여행 9경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보석같은 그곳.

거제 해금강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외도보타니아

학동흑진주몽돌해변

거제도포륜수용소유적공원

동백섬 지심도

여차-홍포 해안해경

공곶이내도

거가대교